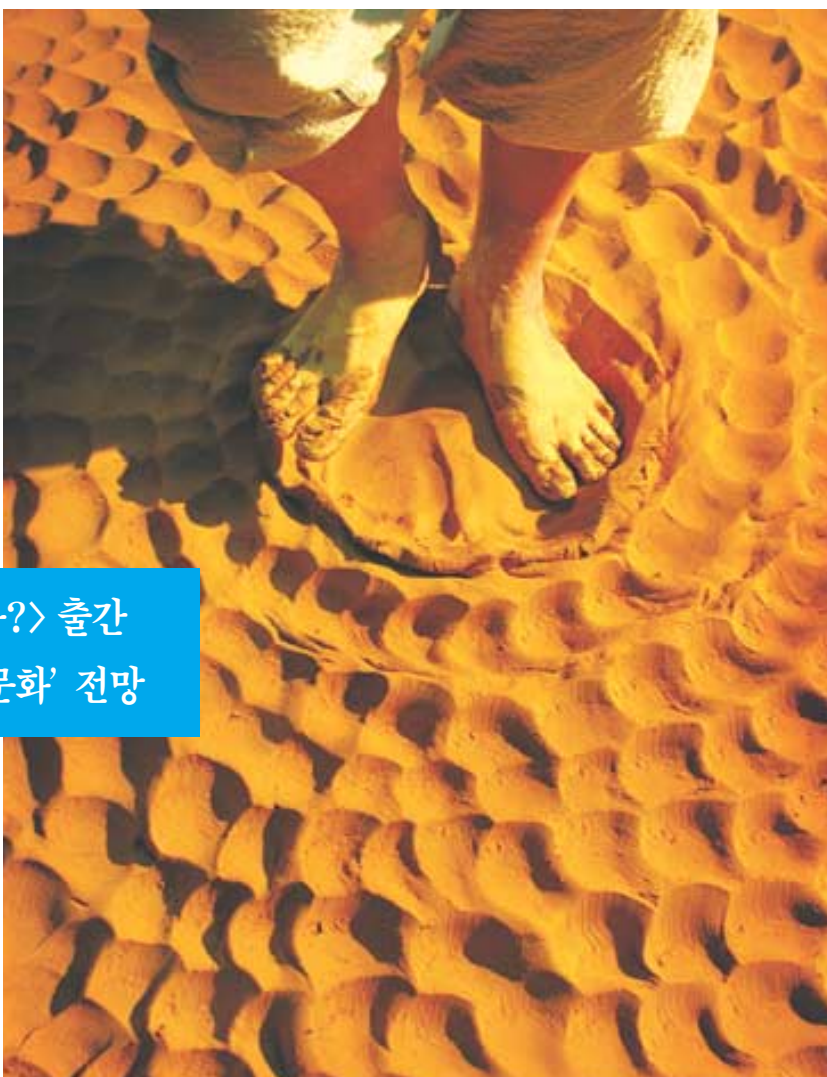


## 공정한 평가로 과도기 벗어나야

소설가 정동주씨에게 듣는  
한국 찻그릇의 어제와 미래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 출간  
역사·발달과정 조명... '도자문화' 전망



차문화 확산에 따라 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다기(茶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설가 정동주씨는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란 저서를 통해 우리 도자사를 살피고 도자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사진은 도자기 만들 흙을 반죽하는 모습. 사진제공=다른세상



신현철씨의 '작은 찻사발'

도예가 14인 한자리  
불일미술관 9월7~17일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벌판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정동주씨가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에서 소개한 14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다기 전시회 '한국의 찻그릇'에서 볼까?'가 열린다.

출품 작가인 김갑순 김대희 김성철 김중훈 김지선 서영기 신현철 이상명 우동진 유태근 이일과 이정화 임만재 홍성선씨. 이들은 해방 이후 전통도예 2세대를 이끌고 있거나 전통도예와 현대도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3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작가들로, 정씨는 이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 찻그릇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전시는 9월 7~13일 찻사발 전, 14~20일 찻잔전, 21~27일 차도구전으로 나뉘어 각각 개최된다. (02)733-5322

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다기(茶器) 차 문화의 발전은 곧 다기의 발전과도 그 행보를 같이 해 왔다. 최근 차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찻그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차 문화 연구에 천착해 온 소설가 정동주씨는 최근 출간된 저서를 통해 "과연 우리시대의 찻그릇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전통도예는 단절되다시피 했고, 해방 이후 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도예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정씨는 책에서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역사와 그 속에서 찻그릇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찻그릇이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다.

정씨가 말하는 우리나라 찻그릇 역사의 흐름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 ▶해방 후-전통도예 부활 위해 노력

해방 후 빠른 속도로 침체돼 가는 전통도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1955년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세워졌고, 56년에는 현대생활에 적합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한국미술연구소가 세워졌다. 이 두 곳은 60년대 한국 전통도예를 개척한 핵심 인물들을 배출하는 산과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의 '전승 도예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발굴했고, 물레를 잠시 떠났던 사람이나 새롭게 물레질을 배우려는 이들을 물레 앞으로 불러 모았다.

6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차 문화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5년 일본의 외교가 재개되자 우리 도예는 일본 차인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된다.

### ▶1970년대-전승과 일본화의 공존 시기

1970년대는 한국 전통 도자사에서 가장 광복화한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동시대에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남긴 시기이기도 하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단절된 위기에 처했던 전통 도예의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식이 일본화 돼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요 소비지였던 일본인의 취향을 따르다 보니 그릇의 형태나 유약, 색채, 문양 등이 한국 전통 도자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서 멀어진 것이다.

특히 찻그릇에서 그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생활도자기는 차인들에 의해 찻그릇으로 각광 받았고, 일본상인들은 우리 사기장들에게 이러한 찻그릇을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주문 생산된 찻사발들은 철저하게 일본화 된 것들이었다.

정씨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져야 할 이 시기에 상업적 이익을 위해 품질이 저약한 상품과 일본 취향의 도자기가 양산됐다"며 "특히 찻사발에서 이런 현상은 두

드러났는데, 일본 차인들의 기호에 맞는 찻사발을 만들다 보니 한국 전통 찻사발의 형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일본화 된 찻사발의 특징으로는 틀로 찍은 듯한 크기의 균일성과 기계로 짚은 듯 정교하고 깔끔한 릿마리틀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재료 수입, 가격 담합 등 해결 과제로

정씨는 우리 도예문화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일본취향을 벗어나는 것과 장작가마와 가스가마의 공존문제,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인 도자기 흙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또한 준비(自費)로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차 단체를 이끄는 이들과의 담합으로 찻사발 가격을 높이려는 일부 도예인들의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더해 찻그릇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비평이 확립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씨는 "도예비평을 위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도예작가들이 비평 자체를 싫어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며 "작품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성과 작가론이 확립되어 우리 전통도예가 과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43)

조선시대 ⑩

### 외교적 다례의식 갖고 다화 많이 남겨

문물이 정비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외교적인 의식다례가 잦았다. 궁중에서도 접빈다례(接賓茶禮)의 횟수가 늘고 진연의례에 진다례가 여러 번 행해졌다. 실학과 학자들도 차를 즐기며 차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남겼다.

한편 경제 정선, 단원 김홍도, 유수관 도인, 이인문 등의 출중한 학자들이 실경산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다화(茶畵)를 그렸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관념적인 이념 세계의 그림이 아니고 실제의 생활을 모델로 한 기록화이기 때문이다. 당시 선비사회에서 차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보여준다.

중국은 정정옥, 육정찬 등이 차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일본에는 매다옹 고유외가 등장해 뒷날 일본 다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 ① 진상다병(進上茶瓶): 분원에서 나온 다병에 붉은 석간주(石間硃)로 진상다병이라 쓰여 있어 왕가의 다기임을 표시했다.
- ② 정선(1676~1759): 호는 겸재. 산수사생의 진경산수의 세계를 그렸으며 몇 점의 다화(茶畵)를 남겼다.
- ③ 이금익(1736~1806): <연려실기술>에 송다(宋茶)에 관한 것에서부터 전고(典故)에 차를 쓰는 것과 기타 왕실에서의 차에 관한 것 등을 기록했다.
- ④ 이덕무(1741~1793): 중국에 다녀와서 실학에 몰두했고 <정경관전서>에 수많은 다사와 다사를 남겼다.
- ⑤ 진연의례: 영조 20년 진연의례에 다도 2명과 사자완(沙磁碗) 10개를 쓴 기록이 있다.
- ⑥ 김홍도(1760~?): 호는 단원. 차에 관한 그림 '시명도(試茗圖)' '전다화화도(煎茶閑話圖)'를 비롯해 수많은 다화를 남긴 차인이다.
- ⑦ 이인문(1745~1821): 구도의 특이함과 독특한 준법으로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 '조선도(囑仙圖)' 등 다화 여러 편을 남겼다.
- ⑧ 유득공(1749~?):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작성된 얘기가 나온다. <발해고도>도 저술했다.
- ⑨ <중보산림경제>: 유중임이 찬술한 책으로 다탕(茶湯)과 백산차에 관해 썼다. 다관과 다종(茶鐘)에 관해서도 기록했다.
- ⑩ 세종 융정 연간에 다세를 한 근의 은으로 정해진 양을 납부케 했다. 상인들이 차를 사서 국외로 반출할 때는 다법에관(茶法禮官)을 거쳐야 했다.
- ⑪ 육정찬: 청대 차인으로 <속다경(續茶經)> 3권, 부록 1권을 남겼다. <왕초당기상> <오중선명설> 등에서도 차 얘기가 실려 있다.
- ⑫ 왕사신(1686~1762): 전각, 예서, 화체 등에 일가를 이룬 차인이다.
- ⑬ 고유외(1675~1763): 매다옹(賣茶翁)으로 알려진 차인이다. 61세부터 통정에서 20여년간 차를 팔았다. 임차에 관한 그의 다도정신은 뒤에 일본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 ⑭ <다양옥종장전기>: 원동원환(遠藤元煥)이 완성한 종장들의 전기. ■성공관내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1727 진상다병 ① 1732 잠상을 엮다 ② 정선(鄭勳)의 활동 1736 이금익(李金翼)의 출생 ③ 1740 <성호사설> 1741 이덕무(李德謩)의 출생 ④	1730 찻세 수입 ⑩ ⑩ 육정찬(陸廷燾)의 활동 ⑪ 왕사신(王士禛)의 활동 ⑫	1730 추천의 희산(樵山)에 차재배 1735 고유외(高遊外)의 매다(賣茶) 생활 ⑬
1744 진연의례(進宴禮)의 출생 ⑤ 1745 김홍도(金弘道)의 출생 ⑥ 이인문(李寅文)의 출생 ⑦	청대	강소시대 1741 <다양옥종장전기(茶湯六宗匠傳記)> ⑭ 1742 매다옹이 영곡(永谷)을 만나다 ⑮ 영국종차량
1748 홍계희 등 475명 일본통신사 1749 유득공(柳得恭)의 출생 ⑧ ⑨ <중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⑨	1747 러시아에 차 수출	

## 청주 관음사 제4기 불교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www.gwanumsa.org

귀의 삼보하옵고, 청주 우암산(牛岩山) 관음사(觀音寺)에서 제4기 불교기본교육 정진대 중을 모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 교육안내

- 교육내용: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 교리, 수행방법 등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 수강료: 5만원 (3개월 교육, 교재비 포함)
- 개강일: 불기 2549년 9월 6일(일계식) 오전 10시
- 강의: 현직 스님(관음사 주지)

#### ■ 접수안내

- 개강 한 달 전부터 개강일까지
- 구비서류: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 사진 1매
- 접수장소: 관음사 종무소 ☎ 043)256-6254

#### ■ 강의일정

회차	주제	내용
1차	입문식 / 불교기본예절	관음사 소개
2차	예불문강의 1	기도의식
3차	예불문강의 2	예불의식
4차	친불가 배우기	관음사의 노래 외
5차	부처님의 생애1	팔상정도
6차	부처님의 생애2	부처님의 발자취
7차	특강	의무강사
8차	근본불교의 가르침 1	삼법인과 연기법
9차	근본불교의 가르침 2	사성제와 팔경도
10차	성지순례	강원도 낙산사
11차	발우공양	스님들의 식사법 체험
12차	회향식	수료증 수여 및 디과

2006학년도 대입수능 합격발원 백일기도

- 입재 : 불기 2549년 8월 16일 양력
- 회향 : 불기 2549년 11월 23일 양력
- 기도비 10만원
- \* 수행생 자녀를 둔 불자들이 많은 동참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 14-1번지 청주 우암산 관음사 ☎ 043)256-6254

##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전권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또 중환병환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회지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말할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집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도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어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물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안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